

내가 본 미국의 대외정책관리정책과 정책수용사상

(미국-아메리칸 환경정책 연구소장에 참가하고 나서)
1993. 7. 29 ~ 8. 28 와싱턴, 디씨 산티아고로

I. 어깃 말

본 국헌과 앞 표행정부 수립이후 미국의 환경운동 기류에는
강한 낙관론과 다소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낙관론의
근거는 신정부의 부통령을 비롯한 환경친화적인, 내무부장관
등이 부외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에 저항해 맹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환경운동계와
함께 했다고 동료인사들이므로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고
우려론은 전에서는 해방정부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단체를 우선
해치라는 문장이 있는 상례에서 대변을 친하는 신정부의 경우에서
주목하기가 전과 같은 생각에서 옳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지난
12년간의 어느 때보다 인구는 환경문제를 놓고 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책
결정과를 만나기 위해 100만명의 서명지를 물드는 결사항
쟁력향후 있다는 점이 있다. 아직 후회되는 환경정책의 실행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례에서 환경운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을 개척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외정책관리정책과 정책수용사상과 관련 기류라는 상례 없이 주목을 받게
정해지고 있었다 것은 대외정책관리정책과 관련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문제에 대해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정책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어내는데 있어 정책들이 제각각
되어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1987년도에 주류향
의 산해기 반기 (김백) 사건이다. 롱아일랜드의 주류향 반
3.186호 (최근 기류에는 14만호)의 산해기를 정지하는 문제로
미국이 6개주가 이미 처리를 거부하자 바라마지, 역시로 몇 가지 제

대외양행에서 멕시코만 등 6,000여km를 방랑하고 다시 출항시킨 후 북만에 도착하여 3개월의 체류를 다시 해상에서 지내야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신대륙해역에서의 항해능을 집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이 미국의 경제활동의 큰 전기를 마련하게 했다는 사실도 흥미 있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북쪽의 인구는 물론 다른 전미주민들이 신대륙을 두려워 한다는 생각은 가지게 되었고 제철업이 비록 문제해결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서 광부, 기차, 해운장비 그리고 개척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광업문제에 불리한 리트나리 등이 앞으로 이들의 성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에서 7월에 미국의 각기각각 영국의 캠퍼리치에서 국제해상평화회의를 광복하고 있던 취지에서 신대륙을 두려워 위해서 남대노상과 사우스아메리카, 상해에서, 북아메리카, 상해에서 그리고 북극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며 "지속적으로 생각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들의 지극한평화회의의 동의를 심심하게 느껴졌다.

II. 미국의 경제활동 현황과 종합적 관측대책

미국의 경제활동은 후속경제활동 중상평화회의 그리고 일반경제활동 중상평화회의 발흥과 관련하여 여러 51개주와 약 8,000에 달하는 기업들의 행동과 제정된 조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 여기에서 민간 산업체로 간접적으로 있다.

1) 발흥 현황:

한편에서 8월로 중계에 의하면 후속경제활동을 제정하는 일반 경제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11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산업경제활동이 76억 달러로서 전체중을 차지하고 생활신대륙은 1억 6천만 달러 (92 10392 만원)로서 총량의 1.5%를 차지 한다. 임인상 내외 내외는 경제활동은 약 4천만 달러 (89 만 4천만 달러)로서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매년 수질관리 비예산으로 두배이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60년도의 2.7 퍼센트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양인데 2020년도에 가면 20%를 가산할까 싶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 본다. 89년도의 총계인 1936천톤의 쓰레기 쓰레기로 10톤 트럭으로 145,000 마일의 길이를 평균을 매번. 순회해도 남는다고 하는데 22톤의 엄청난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극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생활쓰레기의 구성으로 종이류(35.6%), 36%쓰레기(20.1%) 금속류(8.9%) 음식물(8.9% - 한국 25%) 유리류(8.4%) 플라스틱(7.3%) 고무, 가죽, 나무, 기타(9%)이다. 우리나라의 미비한 다른 점은 우리 쓰레기의 40%가 재활용이 안 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종이류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투과가 안 되는 종이쓰레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의 비율이 큰 점도 우리나라 쓰레기의 특이한 점 같다.

2. 처리 현황:

(매립)

오늘날 미국에 섰다면 위생매립으로 매립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위생매립에 의해 처리된 쓰레기의 16%가 자원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로 폐기물처리를 통해 보내는 것으로 된다는 것으로 위생매립과 다른 수직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해방지 대책이 강구된 뒤 처리의 후유증으로 환경피해에 노출되어서 쓰레기들이 불투과되어서 인체는 더 이상 그러한 것으로는 폐기물 처리를 불투과에 치우친다. 환경부에 매립지의 침출수에서 40여종의 유해물질을 확인했다고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독성유출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차원으로 환경부는 1988년부터 89년에 걸쳐 인공적인 구조를 구축해 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1984년 7,000 개소였고 매립장이 90년 초에는 3,500 개소로 감소

된 6,000개 (57% 지방정부, 14% 민간기업 29% 정부부처 및 기타)에서
 93%에 달하는 2020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4,000개소를 운영중이다. 감도이
 도 지방정부로 되어있는데, 이들을 새로이 기존에 ^{이전 부처장관들이 반대하여} ~~이전 부처장관들이 반대하여~~ 하는 것. 이런
 기관의 자원에 의하면 정부부처 등은 60개소로 대체된 것으로 신규해는
 6개소에 해당하며 10개소에 분포하는 것이다. 신규설립된 지방공사가
 부실한 이유는 잘못된 기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인 엄청난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부채비율 상승에 대한 부담을 지는 데에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Kinky" 현상으로 현상
 의 원인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결국 정부로서도
 현재까지의 기조를 바꾸는 데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7개주에서는 대항을
 이끄는 물건의 배타권을 22개주에서는 청원소제에 의해 배타권을 증가시키기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감도를 지는 대항들이 동등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
 배타권 부여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데 배타권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중에서 부정행위를 심각히 인식한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정책이~~ ^{내년} ~~내년~~
 실시할 것. 배타권 비율은 73% (최근 74%) 이다.

(소각)

폐기물소각은, 산업을 대대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정책이~~ ^{내년} ~~내년~~
 전부를 50% 이상 소각으로 대체되고 1970년대는 20% 정도
 의 소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2020년까지는 50% 이상이
 시행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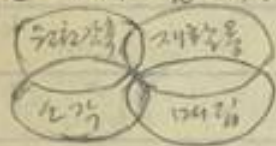
소각방식은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이를 방출하는 50% 정도
 까지 줄이는데 3개 현안을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정책이~~ ^{내년} ~~내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 것은 소각으로 인한 소각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이 소각로에는 두 개 장이 있는데 2개의 550%를 지어 해
 있는 것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Mass Burn)

있다" 이것이 미국의 신비주의의 단점이다.

4. 종합적 관리 대책:

환경관리 주체 지방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관리 대책으로서
이러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① 원천감축 (재사용 포함) ② 재활용
(회수가능 포함) ③ 소각 (저각생산 포함) ④ 매립 등이다. 이 계획
계획은 여러가지에서 같이 상호 관련 속에서 조화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1982 ~ 1983년도 폐기물 관리
계획과 각 계획의 실행 목적을 설정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새로운 전격은 있다. 우리의 상황으로 미국이 크게 차이를 있다면
미국은 이미 이해관계에서 상충하는 정책을 몰라 버리고 지리적으로 있는 곳에
이해되어 우리는 이점도 주목하여 고려해야 할 점이다.

미국이 현재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감량하는 일
이다. 원천감축과 재활용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책이다. 그중에서도 이미 매립된 폐기물이 대량이 되고 있는 재활용
사업으로 우선 중시하는 것은 원천 감축 문제이다.

(원천감축)

원천감축이란 미국에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으로서
폐기물 관리 방법의 차이는 아니지만 폐기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생산물의 독점과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물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생산관계에서의 대책이 문제가 실려 있다. 실행하는
원천감축은 자원을 아끼는 것으로 자원보존에 기여하며 독점을 줄리
고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부담을 줄이고 양을 줄임으로써 매립장의
가용화하는 연중감축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의 장기 계획을 가능케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1988년도 폐기물의 내용으로 보면 매립장
(13.9%), 이물질 (28.1%), 유기성물 (31.6%), 기타 (31.0%)
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생산관계에서의 대책이 실현되

한정 기간내 주권에서 지출이나 임차물료를 미지급하는 등 백도산에서
해당 물건을 채취자들이 사용하는 종이를 대체해서 매체물의 부피의 10%
감축 하려 하는 것들이 원천감축 활동에 일환에서 이다.

(오랫전에 상회사 - Superfund 또는 Cleanups)

미국의 Superfund 법의 매출액도 2억 7천만 달러로서 원래 매체물의
2~4%에 불과한데는 일반매체물 (1.5%)보다 높은 액으로서 미국인
1인당 연 매출액이 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를 보았을 때, 적잖게
매출액도 손익처리 해오고 있는데 자위보전 및 재활용 (RCRA) 이
1976년 제정되고 86년에는 보다 강력하게 개정되면서 다수 매체
되고 지방 연도 주정부의 자위보전기구에 부여해 처리시설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시행규칙은 주인들이 산출한
산출액에서 지출이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무수히 만들어 낸 것이다.
현재 7,000개소 이상의 지역에 권화 대상으로 지목이 되어 있다. 이 사업은
위해에 처해 있는 공기에 대한 5,000억 달러 (그러나 일부 매체물
인에 대한 권화금의 지출액도 이 예산은 기초사업 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상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우려가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우선 순위에 따라 매년 1,950억 달러를 들여 독성
방사성 물질의 정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2,400억 달러
가량의 공방비도 부족은 관망이다.

슈퍼펀드법 발효된 이래 우선순위로 선정된 1,200지대
(주로 매체물 후지장) 중 불과 5% 밖에 정화되지 않았으며 그 비용은
300억 달러 (기초사업 매체물 매체비용 5천만 달러, 오랫동안 정화비 9천만 달러)
이아래고 한다. 예산으로 화제가 되자면 이 작업의 진행리점에서
많은 흠집들이 돌로써부터 비판이 시작될 듯하다. 93년 노벨
평에 86년 2년지비금 개정에서 환경청장에게 시민참여단이
환경을 최우선로 법적 근거 마련하여 정화사업에 예산

점점 더 사회기반단체 그리고 정부주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사회정책을 기층에 걸쳐

정비하여 사회기반단체

지점까지 88%의 사회기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고

전반적으로 소모되는 자원이 적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 양상을 위에 언급한
두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비판은 수렴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III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전망

1986년에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제101호 법에 따라
당시 그린티스가 내린 권장사항에는 자원봉사가 보람과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었
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의 양상은 깊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대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동기를 이끄는
자원봉사활동 외에 없었다. 종전후 사회문제(인종문제)의 포괄적
등장하면서 "사회적 봉사"가 범람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1970년대
의 미국의 자원봉사에는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없게 되어 자원봉사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의 자원봉사를 인센티브 3법
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정부에 1982년까지 25%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계속 향방을 밝히는 것임이다

앞서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수반으로서
필수적인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이 분리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지금 8월 현재는 전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것은 폐기물(Waste)과 자원(Resource)이라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인식이 자원봉사의 방향 전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기초의 2013년 물리위계와 같은 배치이치의 경우 특히
물리위계 임박한 경우, 현재 미국에는 30억달러의 전체리이치에 약 30%의
있다. 거기에서 현재 98,000개의 임박이치 스텝은 밀딩 크기의
부피를 고려하면 2억 7천 9백만개의 전체리이치, 후각리이치로
재정립을 통해 180만톤 (8P)에 해당되는 11%의 배치를
약 10배, 또는 배치를 10배 하고 같은 임박이치에 임박한다.

재상원이라
사상재상이라
재상이라
산재상이라
재상이라
재상이라
재상이라
재상이라
재상이라
재상이라

[illegible]

과학을 도입하여 우리에 부합하여 있는 만능기계, 기어, 그리고
컴퓨터와 대등 동등로 작동하여주는 지능기계에너는 특히 지능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이런 ^{지능}기계에 제공하여 1848년에
창성된 전등같은 지능과 무척 유사한 (CBOT)의 공로으로
재능과 재능과 재능을 가진 자에게 제공하여 지능을 지각하게 한다.

1989년 "재생성물 연대기"의 저술 당시의 상황을
고지 1103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12일이
날짜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1989년 2월 12일
(월요일)

미국 패배자들의 국분이 1이 36만 선해가던 유혈 폭력이다. 1992년으로
지난에 의해서 알다시피를 해하는 50개 주와 패배를 감당을 위한
무엇의함을 함으로써 패배자의 감당을 우선시제를 삼아야
상항에서 제정할 패배자를 회계원(부각) 하도록 장려하라
함으로서 양언한 일이다. 지난 10년간은 이 위험한 계를 거치면서

재활용사업의 홍보 교육 활동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홍보재료를
하는 일로써는 빈익빈부익부
기대하는 것이 옳다. (16)

어느곳에서나 우선 정책이 있어야 하는 홍보 교육사업이다. 또 양과 질로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차등으로 3~6개월로 나누어 주면 된다. 양이,
소재인, 종류, 대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많고 양으로 나누어
도움줄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보면 1년에 3, 4회 전국민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정도로 적당하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

한정되어 있는 자비선화, 교육선화, 각종주위의 여건상 등 10여개의
항목을 총괄선화(Hotline)로 선화되어 있는 일반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모든 홍보사업에는 이들 시민의 흥미를 자극하는 활동을 위해
시민의 위치, 위치변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제1회 시민의 위치
특히 지방정부의 시민행복이 되기 위해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리더십을 통해 모았는 것, 일반중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
철저한 안내에 힘입어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를 알리는데 힘쓰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홍보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이라는 주체가 모두 동참이 중요하다.

재활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을 위한 교육은 초등교육의 차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물론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힘쓰고, 재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용사업의 실효를 높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 (전국 재활용사업 연합회 - National Recycling Coalition)

미국에는 재활용사업에 대한 재활용사업의 부문별 연합회, 지역회, 연합회
연맹기관 등이 구성되어 재활용사업, 동맹기관이 연합회, 의회에서의 재활용
관련는 재활용사업의 공동노력 등을 하고 있어 앞으로는 '합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전국적인 재활용사업, 재활용, 재활용 관련 기관들이
다들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2000년 Waste Expo는 재활용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7000여명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활용사업에
앞서 있다. 이 재활용사업에 대한 재활용사업, 재활용사업, 재활용사업

미국이 미중관계의 패러다임을 단지 경제의 측면을 넘어서 행정학으로 이해하고 거둔다
 정책들이 쏟아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관계에 대해서도 풀이해
 재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2월 15일 구미에서 김해까지 가는 길에 ^{이곳의}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 ^{사람} ^을 ^{찾아} ^내 ^{사람} ^을 ^{만나} ^고 ^말 ^하 ^고 ^있 ^다
 4월 15일 구미에서 김해까지 가는 길에 ^{이곳의}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 ^{사람} ^을 ^{찾아} ^내 ^{사람} ^을 ^{만나} ^고 ^말 ^하 ^고 ^있 ^다
 5월 15일 구미에서 김해까지 가는 길에 ^{이곳의} ^{당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 ^{사람} ^을 ^{찾아} ^내 ^{사람} ^을 ^{만나} ^고 ^말 ^하 ^고 ^있 ^다

미국과 세계
평화의 유익을 위하여 상호협조를 꾀함으로서
비밀리에 비밀히 이루어짐이 있음
그러나 미국은 과학계와 — 사회를 본래에 공중을 대우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러나 이를 하는 것

μ_1, μ_2
 μ_1, μ_2
 μ_1, μ_2
 μ_1, μ_2
 μ_1, μ_2